Issue Paper

2003. 10. 24.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방향

목차

Ⅰ. 농업 농촌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Ⅱ. 농촌어메니티의 개념

Ⅲ. 농촌어메니티의 실천사례

Ⅳ.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방향

내용문의: 전영옥 수석연구원
(jeonyo@seri.org)
02-3780-8133

삼성경제연구소

《요약》

치열한 경쟁체제 속에서 취약한 국내 농업·농촌의 경쟁력

□ 지난 40여년 간 비농업부문이 연평균 8 9% 성장해 온 데 비해, 농업은 연평균 2 3%의 저성장시대가 지속

- 60년대 이후 농업비중과 식량자급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급증 및 가격지지를 통한 농업보호로 대외경쟁력 취약

- 농가소득의 정체, 농가부채의 급증 등이 농가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직접지불에 의한 지원이 미미하여 소득보전효과 미흡

- 열악한 생활·복지기반으로 농촌정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농촌사회의 활력이 저하

□ WTO 농산물 무역자유화 협상 진전에 따라 농업부문의 경쟁체제 진입이 가속화되고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이 확대

- 농산물 수급·가격의 불안정성 확대로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농가소득 불안정성 증대

□ OECD 주요 회원국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자연환경, 경작지경관, 역사적 기념물 등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가지기 시작

-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관광·휴양공간으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농촌의 새로운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

- 농촌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농업·농촌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농업의 활로를 모색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원천으로써 농촌어메니티

□ 농촌어메니티는 단순히 쾌적한 환경이라는 의미보다는 농촌지역 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자원으로 봄

- 농촌어메니티는 청정한 자연환경,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원풍경(原風景)으로써 농촌경관, 특산물, 경작지 경관, 역사적 기념물, 문화적 전통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의미함

- 농촌어메니티는 도시에서와 같이 공간의 질을 높이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재화로써 자원 중심적인 개념임
  · 농촌어메니티는 자원을 의미함으로써 농촌정책이나 개발을 위한 기초단위가 될 수 있음

□ 농촌어메니티와 도시어메니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후자와는 달리 경제성 추구가 가장 큰 전략이 된다는 점임

- 도시와 차별되는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기대
  ·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및 관리를 통하여 경제적 효과를 거두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농촌환경 개선 및 농촌복지의 실현이 가능해짐

농촌어메니티 실천사례의 시사점

□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농촌어메니티 자원관리의 기술적 수단을 가지고 있음

-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브랜드 개발, 경관상품,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상품화 전략을 추구함

□ 국내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에서 도외시 되어오던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역발상을 통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활용이 시작됨

- 낙후된 농촌지역을 어메니티 차원에서 재평가할 때, 청정한 이미지의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탈바꿈 함

- 문화와 축제로 시작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활용은 실험적인 단계이기는 하지만 상품화를 시도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방향

□ 농촌어메니티 정책으로 기존정책의 시급한 전환이 필요

- OECD 회원국과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개발의 새로운 변화 움직임에 중앙정책 대응 미흡

- 지방자치단체들의 인식의 전환과 자생적인 정책의 변화에 대해 농촌어메니티 개념으로 재해석하고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
  · 자생적인 지역경제회생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사업시도

- 농업소득 증진과 농촌공간정비로 분리하여 지원하던 것을 농촌어메니티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

□ 토목사업 위주의 하드웨어 개발에서 탈피

-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토목사업위주의 개발은 지양되어야 함

- 농촌어메니티 정책에서는 기존의 남아 있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보전과 이를 경제재원화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요 전략임
  · 농촌지역의 편리성을 개선해 나가는 지원사업은 지속할 필요가 있으나, 농촌어메니티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함

□ 농촌자원에 대한 재평가와 정책지표의 개선

- 기존 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일부 농촌지역은 도·농 격차가 큰 지역으로 평가되어 차별성 없는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짐

-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관점에서 낙후지역을 보면 개발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 재평가될 수 있음
  · 농촌지역과 낙후지역에 대한 재평가는 경제성 추구에 대한 기존의 개발 방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의미함

-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지표는 도시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요소를 보여주는 긍정적 지표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정책지원수단의 다변화

- 농촌어메니티 정책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컨텐츠 신디케이트(Contents Syndicate)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각 지역의 농촌어메니티 생산자와 밀착된 컨텐츠를 수집하고, 더 많은 수요자에게 보급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중개자로써 컨텐츠 신디케이트 모델 적용

- 각 지역에 산재한 농촌어메니티 자원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디지털 컨텐츠 제작의 적극적 지원

- 농촌어메니티 자원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농가 및 사업체의 발굴과 수익모델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급

-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어메니티 또는 경관보전형 직접지불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기준도입 가능성 검토

- 농촌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농촌어메니티 특화사업 지원

Ⅰ. 농업·농촌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1. 한국 농업·농촌정책의 현주소

□ 구조적 취약성과 향상되지 않는 농업경쟁력

- 60년대 이후 농업비중과 식량자급도가 지속적으로 하락
  · GDP대비 농림어업비중: 38.7%('61) → 8.5%('90) → 4.5%('01)
  · 식량자급도: 93.9%('65) → 43.1%('90) → 29.7%('01)

- 농업경영규모가 영세하여 '규모의 경제' 가 작동되지 않음
  · 호당 경지면적: ('91) 1.23ha → ('98) 1.35ha → ('01) 1.39ha

- 지난 40여년 간 비농업부문이 연평균 8 9% 성장해 온 데 비해 농업은 연평균 2 3%의 저성장 시대가 지속
  · 94 2001년 간 농업부문 평균성장률: 2.7%(일반경제성장률 : 5.7%)
  · 94 2001년 간 농업소득(명목기준)은 연평균 1.3% 증가에 그침

- 농산물 수입급증 및 가격지지를 통한 농업보호로 대외경쟁력 취약
  · 농산물 수입액: 1998년 64억달러에서 2001년 86억달러로 증가
  · 2001년 주요 품목별 국내외실질가격차: 쌀 5.1, 콩 8.2, 우유 2.9, 쇠고기 3.2, 돼지고기 1.2, 고추 3.3

□ 농가소득의 불안정과 소득보전 미흡

- 농가소득의 정체, 농가부채의 급증 등 농가경제 위협
  · 94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의 99.5% 수준이었으나 2001년에는 75.9%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

- 직접지불에 의한 지원이 미미하여 소득보전효과 미흡
  ·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직불금 비중 7%(미국 32%, 일본 13%)

°¡±¸ ´ç ³ó°¡¼Ùæú ³ó°¡ ºÎ Ã¤ ÃßÀÌ

(단위 : 만원)

구분	91년	95년	98년	2001년
농가소득	1,311	2,180	2,049	2,391
농가부채	519	916	1,702	2,038
농가부채비율(%)	39.6	42.0	83.1	85.2

주 1) 전체 농가부채 27조 7,500억원
주 2) 농가부채비율 :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가부채의 비율
주 3) 일본의 경우에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보다 20 30% 높은 상황

□ 열악한 생활, 복지기반으로 농촌 정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농촌사회의 활력이 저하

-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 심화
  · 농촌인구 감소: 90년 7,498천명에서 2000년 5,601천명으로 25.3% 감소
  · 65세 이상 고령농민의 비율: 94년 16%에서 2002년 26%로 증가

- 주거, 상하수도, 도로 등 기초 인프라, 교육·의료·정보화 등 생활환경 및 복지수준이 전반적으로 취약

□ 1980년대 이후 지역적 차별성이 부족한 생활환경정비 사업이 추진됨

- 중앙정부 주도의 물량위주 개발방식으로 농촌생활공간의 특성과 경관을 고려하지 못한 계획이 되고 있음

2. 국내외 환경 변화

□ 비교우위에 의한 경쟁체제로의 진입이 더욱 가속화 됨

- WTO 농산물 무역자유화 협상 진전에 따라 농업부문의 경쟁체제 진입이 가속화되고 농산물시장 개방 폭이 확대

- 경쟁에 입각한 국제분업 및 전문화체제 대두
  · 국내 정책 및 제도의 국제적 조화와 수렴을 통한 공정한 교역과 평등한 경쟁기회의 부여에 대한 압력이 증대

□ 중국의 WTO 가입과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재협상

-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수용
  · 중국은 WTO 농산물협상에서 관심품목에 대한 시장개방을 강하게 요구

- 쌀 관세화유예 연장 문제는 최종 결론과 무관하게 시장개방 폭의 확대로 귀결될 전망

- 2004년에 있을 쌀 관세화유예 재협상은 2004년 농업문제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전망

□ 국내 농산물 시장의 경쟁 심화와 농산물 소비구조 변화

-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자율 · 창의적 경영을 통하여 경쟁하는 분위기 확산

- 농산물 수요가 다양화되고, 고급농산물을 중심으로 소비구조 변화

□ 농산물 수급 · 가격의 불안정성 확대로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농가소득 불안정성 증대

-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수입농산물에 의한 국내시장의 교란요인이 증대
  · 농산물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은 수익성이 있는 작목으로 생산집중을 유발하여 가격급락을 초래할 우려
  · 수입농산물 급증→국내 농산물 공급과잉과 가격하락→농가수지 악화→농업부문 저성장

□ 정보 · 지식사회로의 이행은 농업 · 농촌에 새로운 발전기회를 제공

- 농업에 첨단과학기술과 지식·정보가 광범위하게 응용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대두
  · 생명공학(BT), 식품, 농자재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추세

□ OECD 주요 회원국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자연환경, 경작지경관, 역사적 기념물 등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가지기 시작

-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관광·휴양공간으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농촌의 새로운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

3. 시사점

□ 향후 10년 간의 세계 농업구조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변화해 온 것보다 훨씬 큰 변화가 예상

- DDA 협상, FTA 확산으로 시장개방폭이 확대되고 있음

-「시장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농업부문에서의 경쟁이 심화

□ 공급과잉 시대의 도래로 경쟁력 있는 농업·농업인만이 생존

- 환경변화를 미리 읽고 대비를 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의 전환이 시급
  · 공급과잉, 상품의 다양화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 폭 확대

□ 토지와 인력에 의존하던 농업이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종합산업(life·science·business)으로 탈바꿈

- 첨단기술의 개발과 이용 및 경영·정보 등 지식이 농업의 경쟁력을 좌우
  · 상상력, 비즈니스 감각, 시장원리 없이는 농업도 생존이 불가능

3´ë ³ó¾÷Çõ¸í

구분	1차농업혁명	2차농업혁명	3차농업혁명
시기	1800년 전후	1950년 전후	21세기 본격화
내용	삼포식농업에서 윤작법으로 전환	다수확품종의 개발 (멘델법칙의 이용)	생명공학, 전자공학, 디지털 정보관련 기술의 발달
주도국	영국 -당시 유럽최대의 농산물 수출국	미국 -20세기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	? -농업의 새로운 변혁
특이점	생산량의 비약적 증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농촌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농업·농촌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농업의 활로를 모색

- 생산위주의 농업정책에서 서비스가 부가된 농업정책으로 전환
  ·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 경관 등이 새로운 시장창출의 자원으로 대두

- 농촌의 환경과 전통문화 등 다양한 농촌 고유의 자원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를 창출하여 새로운 소득기회로 활용
  · 지역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소득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농촌다움과 쾌적함에 서비스가 더해질 때 다양한 시장이 창출

Ⅱ. 농촌어메니티의 개념

1. 농촌어메니티란

□ 일반적으로 어메니티(Amenity)는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감흥으로서의 쾌적성을 의미

- 어메니티 자체에 대한 이용자들의 소비욕구에 따라 지불용의성이나 기회비용을 지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파악될 수 있음

□ OECD에서는 농촌어메니티를 단순히 쾌적한 환경이라는 의미보다 농촌지역 사회구성원 들에게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자원으로 봄

- 농촌어메니티는 야생지, 경작지 경관, 역사적 기념물, 문화적 전통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의미함

- 일본에서는 농촌지역 특유의 풍부한 자연이나 역사, 풍토 등을 통해 얻어지는 여유와 윤택함과 편안함으로 가득 찬 거주 쾌적성으로 정의

□ 농촌어메니티는 농촌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 개념으로써 새로운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농촌어메니티는 자원을 의미함으로써 농촌정책이나 개발을 위한 기초단위가 될 수 있음

- 농촌어메니티는 도시에서와 같이 공간의 질을 높이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재화로써 자원 중심적인 개념임

- 농촌주민과 도시민의 공동자산으로써 이들 양자의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촌주민들에게는 일상적 생활환경이면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써, 도시민에게는 관광이나 상품구매와 같은 소비욕구의 대상이 됨

-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정책을 농촌어메니티 추구라는 목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농촌어메니티 추구를 통해 경제적 · 사회적 가치 실현

2. 도시어메니티와의 차이점

□ 18세기 영국 산업혁명 이후 악화된 공중위생 및 도시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어메니티 개념 확산

- 도시어메니티란 도시환경의 악화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성립된 개념으로써 생활환경의 종합적 쾌적성을 의미

- 따라서 최종 목표는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삶의 질 추구이며, 그 수혜자는 도시민에게 국한됨
  · 전략적으로 편리성, 환경성, 심미성, 문화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실천하여 포괄적인 공간의 질을 상승시킬 수 있음

□ 농촌어메니티는 농촌정책의 새로운 목표로써 기존 농촌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함

- 최종적인 목표는 농촌어메니티 자원 개발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임

- 도시와 차별되는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기대
  ·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으로써 청정한 자연환경,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원풍경(原風景)으로써 농촌경관, 특산물 등이 해당됨
  ·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및 관리를 통하여 경제적 효과를 거두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농촌환경 개선 및 농촌복지의 실현이 가능해짐

- 농촌어메니티의 수혜자는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농촌주민 뿐 만 아니라 수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민들도 해당됨

- 따라서 농촌어메니티와 도시어메니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후자와는 달리 경제성 추구가 가장 큰 전략이 된다는 점임

µµ½Ã¾î¸Þ´Ï Æ¼Á ³ó ÃÌ ¾î¸Þ´Ï Æ¼ÀÇ Â÷ÀÌÁ¡

구분	도시어메니티	농촌어메니티
목표	포괄적인 공간의 질 상승	농촌의 새로운 시장의 창출
정책대상	도시공간	개별자원
수혜자	도시민	농촌주민 및 도시민
어메니티 정책추구의 전략	- 편리성 개선 - 환경성 회복 - 심미성 추구 - 문화성 확립	- 경제성 추구 - 편리성 개선 - 환경성 회복 - 심미성 추구 - 문화성 확립

3. 농촌어메니티 자원

□ 농촌어메니티 자원이란 농촌주민의 삶의 질과 쾌적성 및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의미

- 농촌지역의 자연 및 사회·문화 전반에 바탕을 두고 도시지역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자원이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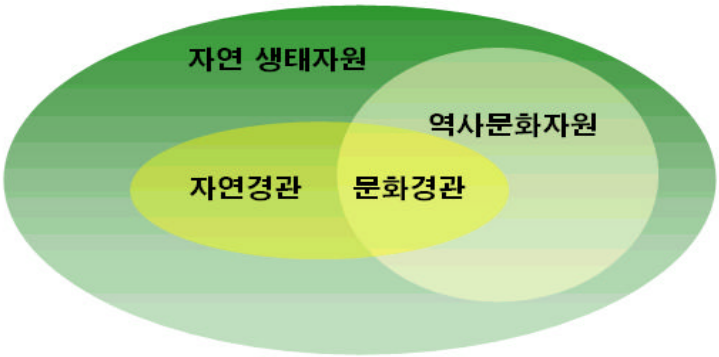
- 농촌어메니티 자원은 농촌주민과 도시민의 공동의 자산으로 볼 수 있음
  · 악화된 도시공간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농촌주민에게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이 중요한 경제재원으로 등장

□ 농촌어메니티 자원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음

- 자원의 종류에 따라 자연생태자원과 경관자원, 역사문화자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자연생태자원으로는 대기질, 수질, 소음이 없는 환경, 비오톱, 토양 동식물 등이 해당됨
  · 경관자원으로는 산림경관, 하천경관, 농업경관, 주거지경관 등이 해당됨
  · 역사문화자원으로는 전통건조물, 전통마을구조, 풍수지리나 전설, 생활공동체활동, 농업공동체활동, 마을놀이 등이 해당됨

- 경관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은 자연생태자원을 바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

³ó ÃÌ¾î¸Þ´Ï Æ¼¿ø¿ÀÇ »óÈ£ ¿¬°á¼º



- 자원의 관리방향에 따라 기초핵심자원, 생활자원형, 관광자원형으로도 분류할 수 있음
  · 자연생태자원 중에서는 대기질, 수질, 소음이 없는 환경, 식생 등이 기초핵심자원이 될 수 있음
  · 경관자원 중 산림, 하천, 농업경관은 기초핵심자원으로서 농촌이 지닌 고유한 경관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자원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역사문화자원은 주로 관광자원화를 위한 유형으로 분류됨

OECDÀÇ ³óÃÌ¾î¸Þ´Ï Æ¼ÀÚ¿ø ºÐ·ù

- OECD에서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인간의 관여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 인간의 간섭이 적은 원생에 가까운 자연적 자원으로써 원시림, 황무지, 고산 산악 등이 있음
-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자원으로는 농업경관, 마을 숲 등이 해당됨
- 인간이 만들어 낸 인공적 자원으로는 역사유적 및 전통적 생산물, 마을축제 등이 해당됨

□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개발 방향은 형성된 배경에 맞추어 최적상태로 유지해 나가면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함

- 도시지역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자원의 발굴이 중요함

- 자원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어메니티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기술을 개발해야함

-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일부는 직접 시장가치재로 전환하여 경제자본을 확충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Ⅲ. 농촌어메니티의 실천사례

1. 해외 트렌드 분석

Trend 1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

□ 영국의 경우, 농촌경관의 보전과 효율적인 경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부 시책 시행

- 정부는 농부와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관 및 역사적 가치의 보전을 증진시키는 시책 추진

-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대해 농부들이 토지를 이용할 때 친환경적인 경작 방식의 유지 등에 관해 계약함
  · 구체적으로 ESA(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제도와 CSS (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제도가 있음

- ESA의 지정대상지역은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지역으로써 환경적 중요성을 지니고 특수한 경작방식을 적용·관리·확장 할 수 있는 지역이 해당
  · 농부나 농업토지관리자들은 중앙정부와 10년 간의 관리계약을 맺어 토지면적당 연간보상비용을 지불 받음

- CSS제도는 ESA의 지정지역 외부에 있는 자연경관과 농촌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일반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

□ 일본은 1980년경부터 농촌어메니티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진흥정책 시행

- 1986년부터 국토청과 (재)농촌개발기획위원회에서 "농촌쾌적성대회"를 개최함
  · 어메니티 향상에 힘쓰고 있는 마을 만들기 활동에 대해 표창하는 사업

- 농촌쾌적성대회의 심사기준은 주민참여 정도,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편리성, 전통문화의 계승, 경관의 보전, 도농교류임

Trend 2 농촌어메니티 자원관리의 기술적 수단 확보

□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성격에 따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지침을 세우고 있음

- 뉴질랜드의 많은 지역계획(District Plan)에서는 어메니티의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zone)을 나누는 경우가 많음

- "Rodney District Plan(2000)"에 의하면 농촌의 특성과 어메니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특별히 관리
  · "General Rural Zone(GRZ)", "Landscape Protection Rural Zone(LPRZ)" 등으로 나누고 행위규제를 실시함
  · GRZ에서는 주거지 개발도 포괄적인 농장(Farm Park)의 형태이어야 하며 중요한 자연환경을 보호해야만 함
  · LPRZ에서는 해안의 경관을 보호해야 할 지역 2곳이 포함됨

- "Rodney District Plan"의 용도지역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결과는 농촌지역의 특성과 어메니티 가치의 보전과 관리로 집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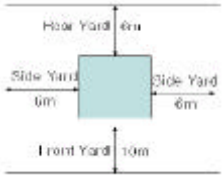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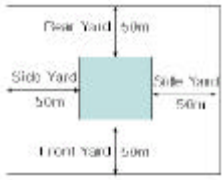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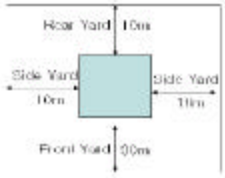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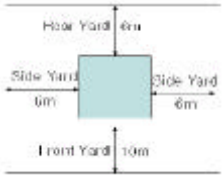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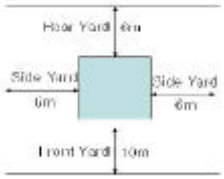
□ 독일의 경우, 비오톱(Biotop)을 중심으로 전국의 기초자료를 DB화하여 농촌지역의 생태서식공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 독일에서의 농촌지역은 식량과 원료의 생산 외에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 자연경관 보호와 생태계의 균형 도모라는 기능 부여

- 비오톱은 동질한 생물서식공간으로써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계획의 관리단위로 이용되고 있음

- 독일의 니더작센주의 비오톱 분류체계를 보면 농촌지역은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지역에 해당
  · 중분류로써 하천 및 습지와 경작지, 산림지로 나누어 지도화 함으로써 생태자원의 관리가 이루어짐

"Rodney District Plan"¿¡ ÀÇÇÑ °³ ¹ßÁ¦ÇÑú Çã¿ëÆâÁØÀÇ ¿¹

용도지역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조경공간의 최소한도
General Rural Zone	A: 9m B: 제한없음	
Islands General Zone	7m	
Countryside Living Town Zone /Countryside Living Rural Zone	9m	
Landscape Protection Rural Zone	A: 4m B: 7m	
East Coast Rural Zone	A: 4m B: 7m	

A: 주거지역 및 부속건물, 숙박시설에 대한 최고한도높이
B: 그 밖의 건물 및 구조물

Trend 3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다양한 상품화 전략

□ 일본은 전통적인 농업경관이며 일본인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원풍경(原風景)으로써 계단식 논(棚田)을 보전하고 상품화함

- 산지가 많은 일본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계단식 논이 많이 만들어졌으며, 1993년 조사 당시 전체 논 면적 중 11.4%를 차지함

- 계단식 논은 '농민들의 기념비', '일본의 피라미드'라고 불릴 정도로 역사적 의미를 지님
  · 그러나 평지의 논에 비해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고 생산성은 떨어져 황폐화되어 갔음

- 1990년대부터 계단식 논의 문화적 가치와 경관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사업시책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시작됨
  · 1998년 2000년에 걸쳐 보전기금사업(棚田地域水と土保全基金事業)실시
  · 도시주민들의 참여와 상품화 방안 모색

- 후쿠오카현 우키하(浮羽)정에서는 계단식 논을 도시민에게 분양하는 사업 등을 통해 관광자원화 함
  · 계단식 논 경관보전을 바탕으로 계단식 논(棚田) 오너 모집

- 오카야마현 구메난(久米南)정은 계단식 논에서 유기저농약 재배에 의한 '계단식논 천연미(棚田天然米)'를 생산 · 판매

ÀÏº» ÀÇ °è´Ü½Ä³í (棚田)ÀÇ º¸ Àü°ú »óÇ°È-

우키하 정의 농작업 체험 축제

구메난 정의 계단식논 경관

자료: http://www.town.ukiha.fukuoka.jp/ (우키하 정 홈페이지)
http://www.town.kumenan.okayama.jp/ (구메난 정 홈페이지)

□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역자연공원라벨을 부착하도록 하여 공원의 어메니티를 반영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 등의 품질을 보증함

- 프랑스에서는 지역자연공원(Regional Nature Parks)별로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음
  - ·각각의 브랜드는 '국립산업재산권협회(National Institute for Industrial Property)'에 의해 보호됨

- 어메니티 자원의 보전과 경제개발의 상호보완관계 모색에 성공함

- 브리에르 공원의 경우에는 주변의 소택지들이 다니는 보트를 제공하는 기업과 레스토랑이 라벨 사용
  - ·일반적으로 브랜드명을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은 공원에서 나온 원료를 사용하여 그곳에서 제조·가공·판매하는 것에 한정됨

ÇÁ¶û½ºÀÇ Áö¿ªÀÚ¿¬°ø¿ø ºÐÆ€ÇöÈ²

자료: http://www.parcs-naturels-regionaux.tm.fr/

2. 국내 트렌드 분석

Trend 1 낙후지역에 대한 역발상

□ 개발사업에서 도외시되어 오던 일부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지금까지 낙후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음

- 개발압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소외된 지역들은 아직까지 인구밀도와 도시화율이 낮음

- 이러한 지역들은 공장이 들어서지 않아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곳으로써 농업 외에는 다른 소득원을 기대하기 어려웠음

Ã»Á¤ÇÑ ÀÌ¹Ì ÁöÀÇ ³ó ÃÌ ¾î¸Þ´Ï Æ¼ÀÚ¿ø È°¿ëÀÇ °¡´É¼º

2001년 기준

평가기준	전국평균	광주광역시	춘천시	함평군	평창군
인구밀도 총인구/총면적(명/㎢)	476	2,767	225.7	111.2	31.8
1인당 녹지면적 임야+공원+농지/총인구 (㎡/명)	1,866.9	254.1	3,820.2	7,653.1	29,480.3
도시화율 읍이상 인구비율(%)	88.1	100	88.3	23.7	21.4
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등록대수/총면적 (대/㎢)	89.3	723.9	69.2	24.5	9.9
광공업체수 광공업체수/총면적 (개소/㎢)	1.1	3.2	0.1	0.7	0.1

주: 농지의 경우 전·답·과수원 포함
자료: 함평군, 광주광역시, 강원도 통계연보, 건설교통통계연보, 통계청

□ 이러한 낙후된 농촌지역을 어메니티 차원에서 재평가할 때, 청정한 이미지의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탈바꿈함

- 인구밀도, 1인당 녹지면적, 도시화율, 총면적대비 자동차등록대수, 총면적대비 광공업체수와 같은 지표를 통해 청정이미지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음
  · 인구밀도가 낮다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쾌적성의 근간이 될 수 있음
  · 아직 미개발지가 많고 도시화율이 낮다는 것은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녹지의 면적이 넓어 자연과 공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자동차 등록대수나 광공업체수가 면적에 비해 적다는 것은 대기오염이나 소음이 적다는 것을 의미함

□ 전라남도 함평군의 경우, 1인당 녹지면적이 7,653.1㎡로 인근의 광주광역시의 약 30.1배에 달하여 낙후지역에서 청정한 이미지로의 변화시도

- 전체면적대비 자동차 등록대수와 광공업체수도 현격히 적어 낙후지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자연과의 공생으로 이미지 전환

□ 평창군의 경우, 강원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1인당 녹지면적이 29,480.3㎡에 달하여 광주광역시의 116배, 춘천시의 7.7배에 이름

- 면적 1㎢당 자동차 등록대수가 9.9대, 광공업체수 0.1개소로 전국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낙후지역임

- 그러나 오대산 국립공원, 대관령을 비롯한 산지 중심의 지형으로 해발고도 700m이상의 고원구릉 지대의 자연조건을 가진 청정지역임

Â÷º° È- µÈ Áö¿ªÀÇ ºñÀü ¾î¸Þ´Ï Æ¼¼-Ãµ¡

- 충청남도 서천군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늦어져 지역발전이 정체된 것에 대한 역발상 시도
- 쾌적성으로 대표되는 어메니티 자원 측면에서 볼 때, 아직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되지 않은 아름다운 해안과 갈대밭이 남아 있는 금강하구, 넓은 들을 가진 농촌경관은 경쟁력이 높은 자원임
- 경제적 활력을 가미한 어메니티 개념을 역동적인 지역회생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어메니티 서천」을 지역의 비전으로 삼음
- 어메니티는 서천군의 정책수립의 기본전략 및 지침으로 활용되어 어메니티를 향상하고 지역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Trend 2 문화로 시작되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활용

□ 함평군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생태계 자체를 자원으로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축제 아이템과 접목

- 청정한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나비를 테마로 하여 1999년 5월 1회 함평나비 축제 개최를 시작하여 2003년 5회에 이름
  ·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 농촌의 자연환경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 축제

- 절개지나 버려진 하천 등에 자운영, 유채, 갓등전통꽃단지 수백만평을 조성하여 자연생태계 자원의 효과를 극대화 함

- 나비사랑체험학습장, 생태체험학습행사, 나비생태관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행사장을 자연상태 그대로 활용한 것이 차별화 된 전략
  · 함평천 수변공원, 함평천 좌우의 친환경농업지구를 주요 무대로 나비축제 행사 개최

□ 함평군은 농촌의 자연환경과 생활을 자원으로 활용한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1997년부터 행사장 주변 농가를 중심으로 메밀밭 조성에 대해 군차원의 지원을 시작함
  · 2002년 기준으로 전체 면적 21ha(참여농가수 30농가)에 대해 적기 파종 및 개화를 조건으로 평당 1,500원 지원

□ 평창군은 효석문화제와 함께 천혜의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을 이용한 대관령 눈꽃 축제를 매년 열고 있음

- 10ha이상의 초지보유 축산농가만도 55농가에 이르고 있는 지역으로써 눈덮힌 경관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겨울 스포츠와 연계시킴
  · 2003년 1월로 11회를 맞이하여 강원도 전체의 눈과 관련된 축제와 연계되고 있음

-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도전하여 군의 잠재력을 키움

Trend 3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상품화 시도

□ 함평군차원의 나비 상품 브랜드인 '나르다(Nareda)'를 개발하여 경영수익을 증대시키고 있음

- 목포시의 행남자기와 서울 무한타월 등 기업체와 품목별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군재정에 도움

- 함평군이 도소매사업자 등록을 한 뒤 '나르다' 브랜드를 이용한 각종 생활용품을 개발하여 나비축제 기간동안 시판
  · 자생하는 나비와 꽃을 대상으로 이미지화 작업을 통해 디자인된 패션/소품, 의류, 가방/핸드백 등 다양한 상품개발

□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자랐음을 인증해주는 '함평천지'라는 라벨 부착

- 친환경농업으로 생산한 쌀에 대해 ‘함평천지’라는 라벨을 부착하여 인증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
  · 오리쌀, 자운영쌀, 나비쌀과 같은 미곡 외에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에 대해 시행

ÇÔÆÈº¿¡¼- °³ ¹ßµÈ °ê·£µå ¹× ÀÎÁõ¶ó§

□ 나비축제를 소재로 한 소설이 발간되어 자연생태자원을 문화상품화 하는 효과 기대

- 함평군 나비축제 장소가 소설 속의 공간적 배경이 되어 나비로 구축된 함평군의 청정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음

□ 평창군에서는 해발고도가 700m 이상인 지형조건을 활용하여 ‘Happy 700 평창’이라는 브랜드를 개발

- 강원도의 파스퇴르 유업이 평창군과 ‘Happy 700 평창’ 브랜드 사용과 청정우유생산에 관한 협약체결

- 평창지역 해발 700m의 청정목장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이용하여 고급우유를 생산하고 평창군과 공동으로 평창지역의 농장을 관리
  · 파스퇴르 유업은 1년 동안 무료로 ‘Happy 700 평창’ 브랜드를 사용하되 2004년부터는 순익의 1%를 브랜드 사용료로 평창군에 지불

Ã»Á¤ÇÑ ÀÚ¿ø-È¯°æ ¼Ó¡¼- »ý»êµÈ ¿ì À¯

-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과정을 통하여 청정자연을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평창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Happy 700 평창 프리미엄골드우유'의 매출이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 어메니티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상품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줌

HAPPY 700 평창

Ⅳ.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방향

1. 농촌어메니티 정책으로 기존 정책의 시급한 전환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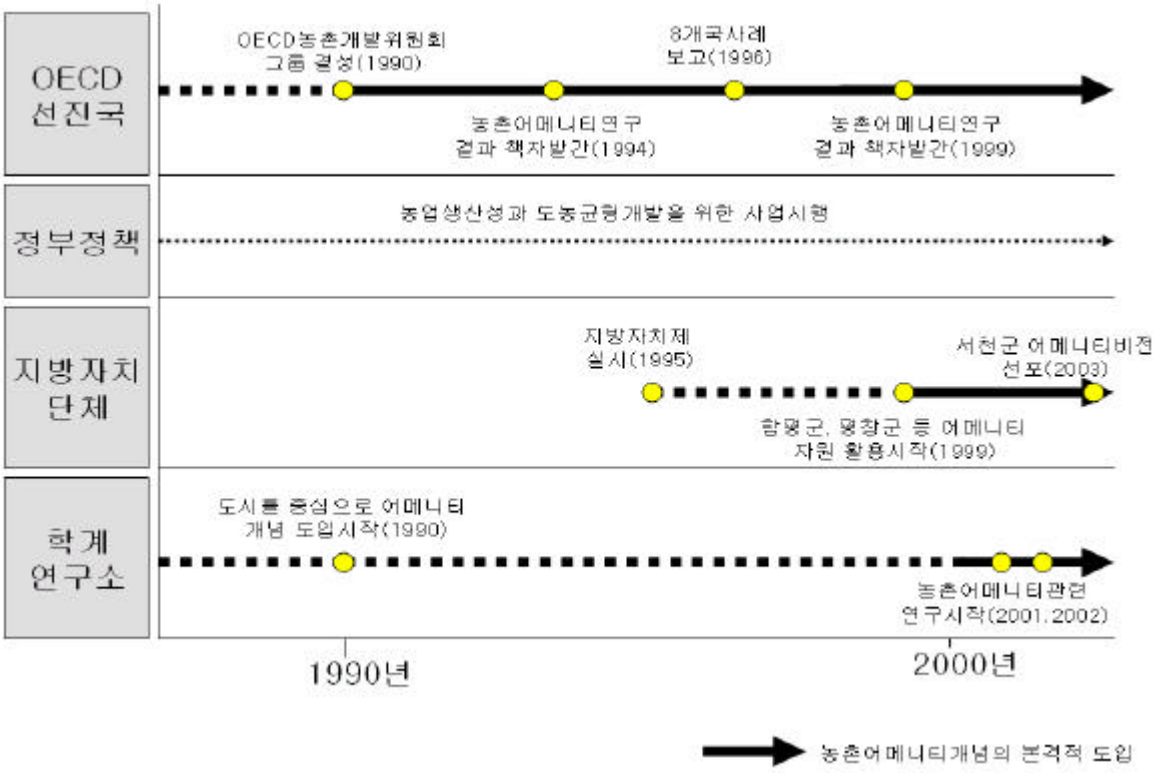
□ OECD 회원국과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개발의 새로운 변화 움직임에 중앙정책 대응 미흡

- OECD 주요 회원국들은 이미 농업생산정책에서 선회하여 농산물 가격지지를 축소하고 농촌어메니티 정책으로 전환
  · 서유럽과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농촌의 정주패턴, 생물종 다양성, 역사적 건축물 등의 자원을 농촌어메니티 자원으로 분류
  ·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농촌어메니티 자원이 결국 농촌개발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

-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농촌지역이 많이 포함된 군 단위의 자치단체들의 정책변화에 중앙정부정책이 뒤쳐지고 있는 실정임
  · 자생적인 지역경제회생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사업시도

- 지방자치단체들의 인식의 전환과 자생적인 정책의 변화에 대해 농촌어메니티 개념으로 재해석하고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

³óÃÌ°³ ¹ßÀÇ »õ·Î ¿î ¹¯È- ¿òÁ÷ÀÓ



□ 현행의 농업·농촌정책의 목표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환경수준의 격차해소로 집약되었음

-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은 주로 경지정리, 경작로, 용·배수로, 수리시설 등과 대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간척사업 등이 해당됨

- 도·농균형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도로정비, 마을단위의 시설정비, 마을종합개발사업, 광역(면)단위종합개발 등이 있음
  · 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는 문화마을조성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있음
  · 광역(면)단위종합개발사업으로는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이 있음

□ 농업소득 증진과 농촌공간정비로 분리하여 지원하던 것을 농촌어메니티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

- 농업생산 자체가 농촌어메니티 자원으로써 관리되고 농촌공간정비와 연계하여 상품성을 높여나가야 함

- 공간단위의 정비사업에서 경제성 추구를 전략적으로 도입한 정책사업의 개발

- 기존의 농촌정책은 환경정비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지역성을 살린 새로운 시장창출을 통한 경쟁력향상에는 미흡하였음

- 특히 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광역(면)단위종합개발사업은 지역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농촌어메니티 정책으로 전환

2. 토목사업 위주의 하드웨어 개발에서 탈피

□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한 획일적인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국제농업질서의 재편에 따라 중요성 감소

- WTO 농업협상 등 농산품 교역을 공산품 수준으로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농업생산정책의 변화필요

- 특히 농업기반정비사업은 농업생산공간으로써 농지 고유의 특성을 파괴하는 경지정리사업과 같은 획일적인 사업위주

- 개간이나 간척사업과 같은 대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심각한 환경파괴가 문제가 되고 있음

□ 마을단위의 시설정비사업이나 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주로 보조금사업으로써 도로정비와 같은 토목사업위주로 보조금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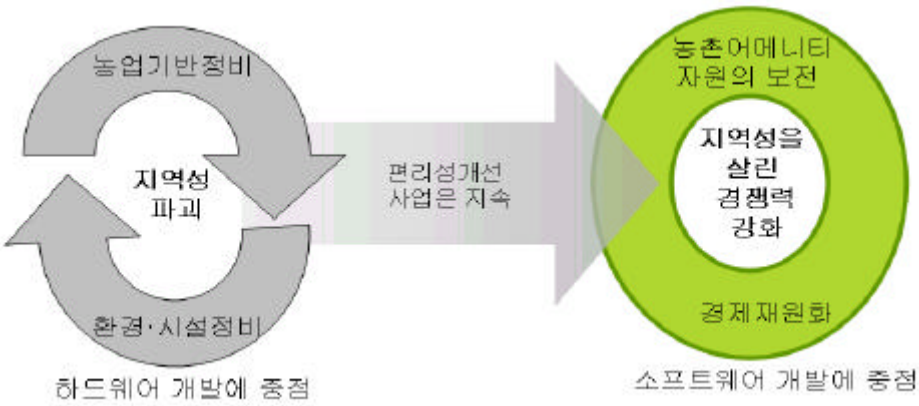
- 무분별한 도로개설, 획일적인 주택개량 등이 농촌경관과 지역성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토목사업위주의 개발은 지양되어야함

- 농촌어메니티 정책에서는 기존의 남아 있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보전과 이를 경제재원화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요 전략임

- 따라서 정부의 정책지원은 하드웨어 개발에 치중되어 있던 토목사업지원에서 탈피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의 편리성을 개선해 나가는 지원사업은 지속할 필요가 있으나, 농촌어메니티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함

¼ÒÇÁÆ®b¾î °³ ¹ß¿¡ ÁßÁ¡À» µÐ ³ó ÃÌ ¾î¸Þ´Ï Æ¼ÀÚ¿øÀÇ È°¿ë



3. 농촌자원에 대한 재평가와 정책지표의 개선

□ 현재의 낙후지역은 농촌어메니티 측면에서 볼 때, 지역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이 많이 남아 있는 곳임

- 종래의 개발지향시대에는 도시와 같은 생활환경을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 위주로 시행되어 왔음

- 기존 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일부 농촌지역은 도·농 격차가 큰 지역으로 평가되어 차별성 없는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짐
  · 농촌 고유성 상실은 물론 이미 도시와의 차별성을 잃어버리게 된 농촌지역이 많이 발생

-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관점에서 낙후지역을 보면 개발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 재평가될 수 있음
  · 청정한 이미지와 농촌의 원풍경을 보전하고 있는 지역일수록 농촌어메니티 자원이 풍부함

□ 농촌지역과 낙후지역에 대한 재평가는 경제성 추구에 대한 기존의 개발방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의미함

-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보전이 곧 경제성 추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
  · 대규모 토목사업과 도시지향의 개발방식을 지양해야하는 당위성 대두

□ 농촌정책의 기조를 결정하는 지표들을 농촌어메니티 측면에서 새롭게 개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지표는 도·농간의 격차를 보여주기 위한 부정적 지표로써 인구, 수세식 화장실율, 도로포장율, 상·하수도 보급율 등을 사용

-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지표는 도시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는 요소를 보여주는 긍정적 지표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오염되지 않은 환경, 낮은 인구밀도 수준, 풍부한 녹지면적, 문화적 다양성 등을 지표로 개발하여 객관적인 정책결정 유도

4.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정책지원수단의 다변화

□ 농촌어메니티 정책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컨텐츠 신디케이트(Contents Syndicate)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각 지역의 농촌어메니티 생산자와 밀착된 컨텐츠를 수집하고, 더 많은 수요자에게 보급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중개자로써 컨텐츠 신디케이트 모델 적용
  · 여기에서 컨텐츠는 On-Line상의 디지털 컨텐츠와 Off-Line상의 상품을 동시에 의미

- 컨텐츠 신디케이트 모델은 경영지원이나 디지털 컨텐츠작업과 같은 소프트웨어와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보전과 농촌환경정비와 같은 하드웨어를 통합지원가능

- 광범위한 수요자들의 욕구와 주문을 반영하여 필요한 컨텐츠만을 찾아서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의 중간의 역할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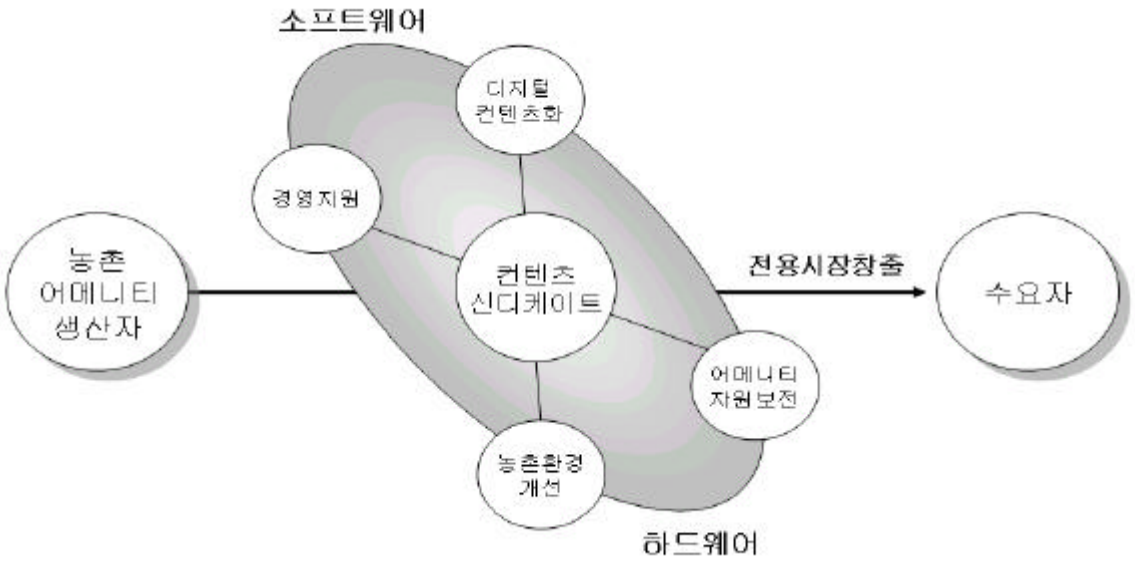
-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할 때, 이러한 중간자의 역할을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

- 농업과 농촌의 통합된 컨텐츠 마켓플레이스 형성을 통하여 농촌어메니티 전용시장을 창출하고 점차 시장의 대형화를 꾀함
  · 이미 구축된 농산물통합쇼핑(http://www.a-peace.com/), 농촌전통테마마을(www.go2vil.org), 농촌관광포털(http://www.greentour.or.kr/)등의 통합 가능성 검토

ÄÁÅÙÃ÷ ½Å¸ðÄÉÀÌ Æ®(Contents Syndicate)

- 신디케이트(Syndicate)란 동일 시장 내의 여러 기업이 출자하여 공동판매회사를 설립, 일원적으로 판매하는 조직을 의미
- 컨텐츠 신디케이트(Contents Syndicate)란 자체 컨텐츠 제작 능력은 적으나, 컨텐츠 시장을 형성하여 컨텐츠의 수집, 거래, 판매 등의 유통을 담당하는 중간자 역할을 의미함
- 농촌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에는 공공적 역할이 강조된 On-Line/Off-Line상의 컨텐츠 신디케이트 모델적용이 효과적

ÄÁÅÙÃ÷ ½Å¸ðÄÉÀÌ Æ®¸ðµ¨ ÀÇ Àû¿ë



□ 컨텐츠 신디케이트(Contents Syndicate)역할 수행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써 농촌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디지털 컨텐츠 제작의 적극적 지원

- 각 지역에 산재한 농촌어메니티 자원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On-Line 상의 정보 네트워크 구축

- 농촌어메니티 생산자들이 제공하는 디지털화된 컨텐츠를 집약하고 관련 거래 및 시장정보를 농촌어메니티 허브(hub) 사이트에 집중시킴
  · 중앙의 농촌어메니티 허브 사이트는 각 도 단위의 지역포털과 연계하여 지역적 특성 반영

□ 농촌어메니티 자원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농가 및 사업체의 발굴과 지원

- 농촌어메니티 자원경영과 수익모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이를 보급
  · 농촌어메니티 자원경영이란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보전을 통하여 형성된 어메니티 가치개념을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하는 것임

- 마을 또는 지역단위의 공동 및 개인사업체가 연합하는 수익모델을 확대해 나감
  · 공동마케팅을 통하여 종합적인 농촌어메니티 가치를 경제재원으로 바꾸어 나감

□ 직접지불제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어메니티 또는 경관보전형 직접지불제 도입가능성 검토

- 논농사를 짓는 농민 중 일부에게 보조금을 주는 논농업직접지불제와 농약과 비료를 적게 사용하는 농가에 대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 시행되고 있음

- 논농업직접지불제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일정 수준에 맞는 농업활동에 대한 직불제이나 지역적 특성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각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메밀밭 조성, 계단식 논 보전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기준 도입 가능성을 열어줌

□ 농촌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농촌어메니티 특화사업 지원

- 농촌문화마을조성, 정주권개발,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농촌어메니티 개념을 도입한 사업계획을 세움
  · 자연생태자원, 경관자원, 역사문화자원 등에 대한 관리계획 포함
  · 기반시설정비 뿐 아니라 경관정비사업을 동시에 시행

- 특히 마을단위의 자체적인 농촌어메니티 특화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기존의 농촌환경개선사업의 우선 시행대상으로 삼음

전영옥(jeonyo@seri.org)
민승규(serimsk@seri.org)

참고문헌

강신겸 · 민승규(2002), "농촌관광의 가능성과 발전방향," CEO Information 333호, 삼성경제연구소

경기개발연구원(1998),『안산시 어메니티 플랜』, 안산시

박창석 · 전영옥 · 조영국(2002.11), "농촌어메니티에 기초한 농촌자원 중요도 평가 및 순위적 관계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7(6)

심상민(2002), "컨텐트비즈니스의 새흐름과 대응전략,"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심상민(2001),『미디어는 콘텐츠다』, 서울: 김영사

오현석(2002), "외국의 농촌어메니티 정책 동향," 농촌어메니티 보전 및 관광자원화 방안 심포지움, 농업과학기술원 · 한국농촌계획학회 주최

윤원근(2003), "우리나라 농촌어메니티 개발정책과 과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5(2)

이상문(2003.5), " 21세기 농촌 신성장동력원으로서 어메니티 경제권 구상," 농촌생활연구소 세미나 자료

이상문 외(2003), "주민참여계획모델에 의한 농촌어메니티 자원발굴 및 설계기술 현장적용 연구(Ⅱ)," 협성대학교 도시환경계획연구소

이상문 외(2002), "주민참여계획모델에 의한 농촌어메니티 자원발굴 및 설계기술 현장적용 연구(Ⅰ)," 협성대학교 도시환경계획연구소

이상문(2001), "주민참여에 의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계획," 농어촌과 환경 11(4),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이재준(1998), "공동주택 주거환경의 어메니티 평가와 계획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영옥(2003.5), "DDA 이후 농촌대안경제구현을 위한 어메니티 자원개발," 농촌생활연구소 세미나 자료

전영옥(2002), "도시어메니티의 개선과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정문선 · 이명우(2000), "우리나라 중소도시 비오톱 공간의 조성방안," 한국조경학회지 28(4)

정치영 · 김두철(2002), "산지에서의 농경지보전대책의 모색-일본 岡山縣 棚田 보전사업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 2002년 춘계학술대회 요약집

차미숙(2002.1), "영국의 친환경적 농촌보전 관리시책(2)," 도시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OECD(1999), *Cultivating Rural Amenity*, 오현석 · 김정섭 역(2002), 『어메니티와 지역개발』, 서울: 새물결

中村民也(2001), "일본에서의 환경과 어메니티를 고려한 농업 · 농촌정비," 환경과 어메니티 그리고 농업 · 농촌 정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업기반공사 주최 국제학술대회

Managing Rural Amenity Conflicts(2001), 뉴질랜드 환경부 (http://www.mfe.govt.nz)

Rodney District Plan(2000), 뉴질랜드 Rodney District Council 홈페이지 (http://www.rodney.govt.nz)

http://www.town.kumenan.okayama.jp(일본 오카야마현 구메난정 홈페이지)

http://www.town.ukiha.fukuoka.jp(일본 후쿠오카현 우키하정 홈페이지)

http://www.parcs-naturels-regionaux.tm.fr(프랑스 지역자연공원 홈페이지)